

農家 副業 에 대 한 小 考

—殘餘의 農業人口를 위해 적절한 副業對策 시급—

韓國陸水學會 姜 壽 遠

I. 序 論

우리나라의 國土 220,000ha 중 21.5%가 農土이고 全國民의 51%가 農民으므로 農業이 主業임을 일견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祖國近代化의 礎를 다지는 商工業에 비하여 農業은 아직도 後進性을免치 못하고 있다.

農家收入도 年間 194,000원(1970)에 이르러 급격히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每戶當 6人의 가족을 지탱하기에 0.9町步의 農土收入으로는 너무나도 벅찬 바가 있다. 그리고 後進國일수록 農家經濟의 農業依存度가 큰것인데 이것이 日本의 36.3%(1970)에 비해 우리는 75.8%(1970)가 된다.

그리고 農土가 협소하여 農業이 零細化되고 農家人口의 과잉으로 당연한 結果로 유희노동력이 문제이다. 이러한 유희노동력의 月利分布를 보면 12月 33.8%, 1月이 37.9% 및 2月이 51.5%이고 3~4月이 各各 30%로 되었으니 겨울에 세끼나 끄는 정도로 休眠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을 고려할 때 당연히 農業人口의 工場吸收와 기타 轉業이 必要하겠으며 殘餘의 農業人口를 위해서 적절한 副業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本 論

(1) 副業의 條件

農家の 主業인 農業을 위주로 함은 勿論이고 農業의 여가에 유희노동력과 小액의 자본으로만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經濟性 있는 職種이 副業의 條件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言及하면 다음과 같다.

- 1) 大資本과 施設이 필요치 않아야 한다.
- 2) 높은 지식이나 기술이 들어서는 아니된다.
- 3) 市販이 잘되고 資金回收가 빨라야 한다.
- 4) 農業의 餘暇에 유희노동력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L) 農業副業의 振興策

이와같은 副業으로서의 基本條件이 충족된 어떤 副業을 장려하고 진흥시키려면 몇가지 문제점이 考慮되어야 한다.

1) 自然地理的 條件

都市近郊, 山間地域, 農村地域 및 農漁村地域等 그가 처한 자연지리적 特殊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都市近郊에서는 都市民의 가장 중요한 菜蔬, 花해(꽃) 및 觀音어等을, 農村에서는 特殊作物, 축제품, 糞제품, 왕골제품, 양계, 양돈, 양어 등을 고려함이 좋고, 山村에서는 갈포, 찌리, 목제품(목기, 완구), 한지(창호지), 등이 農漁村에서는 굴, 김의 양식외에 鮑류가공, 해조표본 및 海藻의 乾燥品等이 대상이 되리라고 본다.

2) 經濟的 條件

農家에서 손쉽게 그리고 싸게 많이 구할 수 있는 原料나 農家副産物이 原料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기호품인가 生活必須品인가 農畜用品인가에 따라서 品格을 달리 함은 물론이고 觀光客用과 輸出用品에는 特別 尙태방 外國人의 기호를 고려하되 主體性이 반드시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3) 社會的 條件

어느 社會나 그가 처한 傳統과 慣習이 있고 구성원(農民)의 자질과 知的水準에도 구구한 차이와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눈에 띄기 어려운 內的인 社會的條件이 감안되어야 하겠다.

III. 結 論

아무리 商工業界가 발전되어 經濟成長이 이룩된다 하여도 農業이 後進性을 면치 못하면 不具의 近代化에 지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農業을 진흥시키려면 農家副業의 선도가 극히 필요하다.

그리고 農家副業은 自然地理的, 經濟的 및 社會的 條件에 맞는 副業을 예의검토하고 研究하고 模範部落에 시험해본 후에 비로소 農家에 보급시켜야 하겠으며 決코 一時的 거부작용에 호응하는 試行錯誤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